

KOREA

TOWN 시카고 한인촌



Who's Who?

젠 샤코위스키 (Jan Schakowsky)

직업: 연방하원의원

나이: 5
출생지:
학력: U
주소: 2
60201
전화: 8
샤코위스

작은 삶이 모여 이민역사가 됩니다

한국일보

“미주여성들의 사회활동은 사명감있고 순수합니다”

“사랑의 친구들” 총재 박영숙씨

“이희호 대통령부인과 40년간 여권신장 노력”



인터뷰

“미주 여성들의 적극적 사회활동이 한국과 다른 점은 사회적 요구에 의해 필연적인 사명감으로 일한다는 것과 정치적인 야망이 없고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17일 개인 자격으로 시카고를 방문한 전 평민당 부총재 박영숙(68세·사랑의 친구들 총재 겸 한국환경사회 정책 연구소장) 씨가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밝힌 말이다.

미주지역 나라사랑 어머니회 시카고지부(지부장 심정열)와 17일 저녁 비공식 디너를 가진 박총재는 현재 한국내 여성들이 모인 범 국민적 사회봉사단체인 ‘사랑의 친구들’ 대표직을 맡고 있다. 사랑의친구들은 ‘가난하고 차별받고, 소외된 사람들의 따뜻한 친구가 되고 인권존중, 평화증진, 자연을 지키고 사랑하는 일을 합니다’라는 모토를 가진 여성모임으로써 IMF 이후 생겨난 15만 결식아동들과 실직 여 가장 돕는 일, 노숙자 돕기, 장애아동 돕기 등의 행사들을



한국내 환경문제와 여성문제에 앞장서고 있는 『사랑의 친구들』 박영숙 총재

주관해 오고 있다.

또 박총재는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약 30여년을 한국의 환경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여왔으며, 88년 13대 국회의원으로 금빛지를 달아 평민당 첫 여성 부총재로 전격 발탁 되기도 했다.

“솔직히 정당정치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정당이라는 것이

남·녀를 초월해 상대방을 밟고 일어서야 하는 무서운 것이었거든요. 앞으로는 기회가 주어진다 해도 다시는 정치 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밝힌 박총재는 자신의 정치사를 돌이켜 볼 때 조직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음을 솔직히 말했다.

한국 YWCA사무총장을 역임기도 했던 박총재는

미국을 포함 전세계에 흩어진 한국여성들의 진취적인 사회참여와 여권신장 운동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는 “세계각국에 퍼져있는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힘을 합쳐서 여성들이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건실한 사회에 기여하는 여성들이 되도록 훈련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 경제를 비롯 모든 상황이 호조건인 미국거주 한인 어머니들이 결식아동은 물론 새로운 비전있는 프로젝트 완성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의 영부인인 이희호 여사와 함께 40여년 넘도록 여성평등과 여권신장을 위해 봉사해왔다”면서 “영부인은 덩달하지만 굉장히 신중한 분이 며, 소외계층을 걱정하는 마음만큼은 진실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또 최근들어 국민들의 국정비난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고있으며, 이것은 일부 여론의 무책임한 보도도 한몫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리고 근자에 들어 잇슈화 되었던 고관 옷 로비사건 견해로는 “기득권 상류 여성들의 로비관련 관행이었고 궁극적으로는 사치와 허영 그 자체였다”며 “IMF체제하에서 모두가 살아보겠다고 허리띠 졸라매는 형편에 수천만원의 명크가 오고가는 뻔뻔한 생활양식은 반드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분노했다.

한국 환경 사회정책연구소 소장이기도 한 박총재는 앞으로 “동 연구소를 잘 운영해서 유능한 젊은 후배들에게 넘겨주는 일과 40년 지기 여성 운동가 이희호 여사와 함께 고통이 없는 사회를 만들면서 여성평등 운동을 완성하는 것이 삶의 최고 목표”라고 말했다.

〈박 신규 기자〉

환영 A

박영숙 총재 강연회

주최: 나라사랑 어머니회 7-21-00



만 한국여성자유헌방 세

